안산 시승격 30주년
1000년의 숨 30년의 땀 100년의 꿈

브라보 안산
BRAVO ANSAN

NO. 419 / ANSAN CITY NEWSPAPER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 blog.naver.com/cityansan
ⓕ facebook.com/ansancity3
ⓣ twitter.com/ansancityhall
ⓢ story.kakao.com/ch/ansancity

발행일 2016년 5월 11일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031.481.2042 / Fax 031.481.3224 / E-mail bravo@iansan.net
e-브라보안산 https://bravoansan.net

2016.05.11

우리의 영웅

영웅 이야기 네 번째 # 선생님

철없는 시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선생님.
하지만 이 철부지들의 곁을 항상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흐르면, 당신을 나의 영웅이라 부르겠습니다.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학교에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교육,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

나무의 나이테처럼 안쪽의 스승이 바깥쪽의 제자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며 둥치를 키우는 오월이다.
동양 유학자 순자(荀子)는 스승이 되기 위한 덕목으로 학문적 깊이보다는 믿음으로 남을 범하지 않는 정신을 중요하게 여겼다.
또, “물이 깊으며 소용돌이치게 되고, 나뭇잎이 떨어지면 뿌리에 거름이 된다. 제자가 학문에 통하고 이롭게 되면 스승을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제자가 스승의 은혜를 안다는 것이다.
스승의 날을 맞아 양지중학교 이은화 교사를 만나 참교육에 대해 들었다.

신선영 명예기자 _ woghkah@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_ hanmarus@naver.com

Q. 사춘기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것들이 가장 힘든가요?

A. 사춘기는 뇌가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집을 부쉈다가 다시 짓는다고 해요. 예민하고 작은 일에 짜증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감정적으로 아이들과 소통을 잘 해야 하는 것이 힘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교사로서 아이들의 감정을 잘 읽어주고 그 입장에서 공감해주고 소통하려는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의 혼란과 진로가 명확하지 않아 방황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너무 무기력하거나 사춘기라는 명목 아래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사춘기라는 시기는 방황하는 가운데에서 자신의 길을 찾는 시기이기도 하니까요.

양지중학교 이은화 교사

Q. 보람을 느낄 때도 많겠죠?

A. ‘나의 꿈’을 발표하는 대회가 있었는데요, 한 학생이 제 사진을 달라는 거예요. “선생님과 같은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다”며 PPT에 사진을 넣으려고 한다는 말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로를 고민하게 됐다거나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고 마음먹었다는 말들이 우연히 건넨 말 한마디가 이렇게 아이들에게는 영향을 주는 거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이정표나 신호등처럼 그들의 인생에 변화를 준 걸까 싶을 때, 진심이 전해졌다고 느끼는 순간, 가장 보람이 커요.

Q. 어떤 교육철학을 갖고 계시는지요?

A. ‘다움’을 모토로 ‘학생다운 학생’,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기본생활습관을 잘 지키고, 겸손하게 행동하고 배려할 줄 알며, 자신의 꿈을 가꾸어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친구 문제가 제대로 풀려야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각 교과 선생님과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유지될 때 긍정적인 학습태도가 길러집니다. 이런 양 방면의 관계가 잘 풀려야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키워지는 것이겠지요.

Q.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A. 교사로 갓 부임했을 때는 개개인보다는 단체를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에 아이들을 엄하게 대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따뜻하게 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도 저를 찾아주는 제자들이 있어 참 고맙답니다. ‘우리 마음을 알아주려고 애쓰고 열심히 가르치던 선생님’으로 기억된다면 더 바랄 게 없어요.

Q. 교사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이 갖춰야 할 것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교사가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서도 가능한 일일 겁니다.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선생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아이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주겠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교과에 대한 확실한 지식은 물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숙하다 하더라도 사람을 알아가려는 노력과 관심을 쏟는 일은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Q.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A. 요즘은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창의적이고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런 친구들이 무기력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표의식을 갖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실수로 절망하지 않기, 그 실수가 전화위복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실수로 인해 더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니까요. 부모는 아이들의 실수가 강박이 되지 않도록 너그러이 바라봐 주셔야 합니다. 재능이 각기 다른 아이들이 성적 하나만 보고 우르르 달려가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성적이 아닌 다른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의 장점이 보입니다. 장점을 찾아 그것을 개발해주려는 노력을 기울여주세요. 선생님과 학교를 믿고 지지하면서 함께 아이를 이끌어가는 환경을 만들어주었을 때 아이는 성장합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상반기 장학생 선발

꿈키움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이 지난 14일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학생과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학생 449명, 대학생 57명을 선발했다. 고등학생에게는 분기당 35만 원씩 연14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대학생에게는 400만 원 한도에서 타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을 지급하였다. 산업체근로자 교육위탁 장학생은 29명을 선발하여 한 학기 등록금의 50%를 졸업할 때까지 지원한다. 재단은 금년 6~7월 중 안산꿈키움장학생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문 의 교육청소년과(031-481-3454)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제94회 어린이날 기념 축제 ‘오월愛나라’ 열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에 안산호수공원 중앙광장 야외무대에서는 푸른 5월의 하늘만큼 푸르른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축제 ‘오월愛나라’가 열렸다. 5일부터 8일까지 나흘의 연휴 기간 중 첫날 마련된 축제에 안산의 어린이들은 난타, 연극, 마술, 코미디 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연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엄마와 언니, 그리고 친구네 가족과 함께 축제에 온 김나연(중앙초 4) 어린이는 무척 신이 났다. 직장일로 바쁜 엄마와 대학생인 언니가 시간을 내준 것이다. 저녁밥을 함께 먹는 날이 한 달에 몇 번 되지 않는 바쁜 엄마와 언니인데 오늘은 어린이날이어서 함께 했다. 김나연 어린이는 “마술공연도 신기하고, 코미디 퍼포먼스도 재미있어요. 엄마, 언니하고 함께 와서 더 즐거운 거 같아요.”라고 말했다. 이날 축제는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라는 어린이헌장 낭독으로 시작됐다. 타악 그룹 ‘블랙 퀸’은 신나는 연주로 무대의 막을 올렸다. ‘셔플 코믹스’의 두 남자 코알과 존장의 코미디 퍼포먼스는 어린이 관객들의 시선을 잡아끌었고 저글링 묘기가 펼쳐질 때에는 눈을 떼지 못하고 빠져들게 했다.

축제장 곳곳에 마련된 체험부스에서 어린이들은 솜사탕, 팝콘, 쿠키를 직접 만들어 보고, 다양한 체험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21개 팀이 참가해 예쁜 노랫말의 동요를 부른 ‘가족동요대회’는 이날 축제의 백미(白眉)였다. 안산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는 연극도 무대에 올려졌다. 안산의 역사를 연극으로 꾸며 우리고장 안산이 천년도 넘는 유서 깊은 고장임을 전했다. 부곡 타이거즈 태권도단이 보여주는 시범 공연은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절도 있는 품새 시범과 두꺼운 널빤지를 돌려차기로 조각을 낼 때에는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안산시 여성가족과 전복희 과장은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푸른 5월만큼이나 푸른 꿈을 꾸고, 펼치도록 어린이날 기념 축제 오월愛나라를 마련했다.”면서 “학교, 학원 다니느라 바쁜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만큼은 마음껏 즐기며 학업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무럭무럭 자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 : 여성가족과(031-481-2209)
백미란 명예기자 _ whity0218@naver.com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실 개소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 5월 4일 사무국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2011년 출범한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그동안 사무실과 직원 없이 시의 지원을 받으며 운영돼 오다, 이번에 별도의 사무실을 개소하고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 2명이 활동한다. 노사민정협의회는 각종 경영컨설팅 지원과 노사상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날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개소식에는 안산시 관계자, 노사민정 각 대표와 노동단체 관계자, 근로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 경과보고를 맡은 일자리정책과장은 “차별개선분야, 산업안전보건분야, 불법파견문제 등 안산시의 취약한 노동문제를 현안의제로 선정해 사후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과 역할 분담을 통한 회복체계를 구축해, 산업 시너지 역할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실 개소는 노사민정에서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을 보다 적극적이고 연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가장 시급한 문제인 근로자들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에 청년일자리를 양성하는 과제를 노사민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국노총 안산지부 김광호 의장은 노사민정협의회가 앞으로 하게 될 일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반월공단에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97%정도 분포 됐는데, 노동조합을 통해서 말을 할 수 없는 노동자들도 많이 있다. 또, 안전사고로 인해 반월공단에서 1년에 약 35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책을 세우는 일도 노사민정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올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근로기준 산업안전 컨설팅,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착교육, 근로환경개선 및 공정한 일터 참여개선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 2011년 11월, 근로자대표 3명, 사용자대표 3명, 주민대표 2명, 정부대표 3명, 총 11명의 노사관계협의회 위원을 구성해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증진 등을 현안의제로 하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출범했다. 이후 2012년 SJM노사분규 사태와 지난해 1주년기 노사분쟁 사태를 중재하는 등 노사분쟁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또, 노사민정이 상호 협의해 공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 실천선언문을 도출했고, 노동정책 자문단을 구성해 지금까지 9차례 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안산시 노동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칭)를 의회에 상정해, 오는 12일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조례가 통과되면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은 물론 취약계층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 문의 : 일자리정책과(031-481-2282)
송보림 명예기자 _ treehelper@naver.com

안 산 시
유관기관
둘러보기
6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보 건 소 어디까지 이용해봤나요?

임신과 출산,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병원 못지않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문의 : 안산시 상록수보건소(031-481-5909)
신선영 명예기자 _ woghkah@hanmail.net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각 구 · 시 · 군에 설치되어, 공공부문의 지역보건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다. 의사인 보건소장 밑에 과장, 보건행정 · 건강증진 · 감염병관리 · 의약관리 · 방문보건 · 모자건강 · 진료검사 분야로 나뉘어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관한 업무를 한다.

상록수보건소(상록구 차돌배기로1길 5[사동])는 43명의 의료전문가들이 ▲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의 · 약 업소 지도점검 ▲ 전염병 예방 관리 ▲ 의료 소외계층 방문 ▲ 임산부 영유아 건강 관리 ▲ 한방이동진료 등의 보건행정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상록수보건소 김의숙 소장을 만나 병원 못지않은 보건소의 다양한 혜택에 대해 들었다.

상록수보건소 김의숙 소장

Q.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나요?

A. 올바른 생활습관을 통해 지역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11개 공원(호수 · 성호 · 노적봉 · 은하수 · 석호 · 반월 · 용하 · 성포 · 수변공원, 감골 · 시낭운동장)에서 야간운동교실을 열고 있어요. 또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금연상담 및 보조제를 지원하고, 학교에 찾아가는 흡연예방교육, 캠페인, 상록구 자율방범대원과 함께 금연구역 지도점검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금연 · 간접흡연 피해 방지사업을 벌여 2015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고혈압 · 당뇨병 등록교육, 자살예방, 감염병 예방관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구강건강관리 등 사업을 하고 있어요.

Q. 고혈압 · 당뇨병 등록교육사업은 시민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A. 고혈압 · 당뇨병 등록교육사업은 시범사업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상을 받은 상록수보건소 특화사업입니다. 전국 250여 보건소 중 16개 보건소가 3 ~ 4년간 시범 운영했던 사업이 현재는 전국으로 확대되었어요. 단원보건소에 등록된 인원을 포함하면 안산시에 등록된 30세 이상 고혈압 · 당뇨병 환자는 약 4만5천 명(10만 명 추산)입니다.

상록수보건소에서는 고혈압 ·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416-9088)를 두고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식이요법 체험을 통해 식습관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요리교실까지 연계해 운영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이용해 혈당체크 결과를 보건소와 공유하는 '당뇨병환자 IT기반 자가 건강서비스 사업'은 덴마크에서 벤치마킹하러 다녀가기도 했어요. 과체중 · 혈당 관리를 꾸준히 해온 환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합병증 예방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예방사업은 국가차원의 의료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큽니다.

Q.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A. 출산지원 관련 사업은 시민들이 잘 알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 산부인과에서 드는 비용보다 최대 50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어요.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상태를 검사해줍니다. 매독 · 에이즈 여부, 백혈구 수치 등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구요. 임신부에게는 출산준비 · 태교교실을 열고, 엽산제 등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80% 이하의 출산 가정에는 1년간 기저귀 · 분유 비용으로 월 6만4천 원을 지원하며,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난임부부나 청소년 출산비도 지원하고 있으며, 조부모 손주돌봄교실 등도 운영하고 있으니 꼼꼼히 챙겨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A. 100세 시대에는 '아는 것이 힘'입니다. 보건소의 많은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건강증진실, 한방진료실도 이용하면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상담할 수 있는 건강지킴이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메르스나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은 손씻기만 잘 해도 효과가 큽니다. 보건소에서는 1년 내내 방제사업과 방역소독을 하고 있으며, 모기가 많아지는 여름철에는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손씻기, 구강관리, 운동교실 등 평소에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을 실천해 건강하게 100세를 살아가기 바랍니다.

대부포도를 만드는 사람들

대부도의
바다, 바람, 태양, 흙
그리고 대부 사람들의 고난함,
기쁨이 배어 있는 대부포도.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모습과 방식으로
포도를 지켜낸 고마운 분들을
찾아 여행을 떠난다.

땅위의 그들 "모든 농사꾼이 그렇듯, 포도는 저에게 삶 자체입니다."

대부도에는 포도를 처음 재배했던 농민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 현재까지도 계속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농가가 꽤 있다. 푸른 눈동자가 인상적인 김대학 씨는 오래 전 부친께 포도밭을 물려받았고, 당시 젊은 층에 속했던 그를 비롯해 30대 청년 몇몇이 대부포도의 품질향상을 위해 밤낮없이 뛰어다녔다. 15년이 지난 지금은 또 다른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한 포도연구회가 조직되어 그 열정을 잇고 있다.

그는 대부포도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한편 생각이 많아보였다. 대대손손 내려오는 포도농사지만, 농사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일 테다. 그는 품질 좋은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 '알 솎기'를 철저히 하는데, 45일을 '알 솎기'만 할 때도 있었다고 한다. 그럴 때는 정말 눈도, 피도 파래지는 기분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겪어야 적당한 당도와 산미를 가진 맛있는 포도가 되기에 견뎌낸다. 자연의 순리를 놓치지 않으면서,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고 과정을 묵묵히 견뎌내는 것. 비단 농사꾼의 이야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바다와 농민의 애착심이 키워낸 포도는 훌륭한 원료가 되어 대부도의 미래를 꿈꾸게 한다.

바다의 향을 담은 포도 '그랑고또 와인'

정말 맛있는 것은 지금 바로 입에 털어 넣을 수도, 아껴먹을 수도, 나중에 먹을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나눠 먹는 것'이다. 일 년 동안 땅 위에서 농민들이 공들여 재배한 포도를 사들여,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와인'으로 재탄생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그랑고또 와이너리(그린영농조합).

그랑고또의 김지원 대표는 품질이 좋은 대부포도의 향과 맛을 우리 입맛에 맞는 와인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우리 입맛에 맞는 와인이란 어떤 맛일까? 유럽의 레드와인에 탄닌 성분 함량이 높은데, 이 성분이 그들이 먹는 음식의 느끼함을 해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음식은 대체로 느끼하지 않고, 그렇다하더라도 '김치'가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닌의 함량이 높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와인의 원료인 대부포도에 대한 자긍심은 외국의 와인을 흉내낼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훌륭한 맛을 담보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숙성 기간 동안 와인도 사춘기를 맞이한 것처럼 온도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를 부모의 마음으로 지켜보며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 이에 향은 살리고 탄닌은 줄이며 대부포도의 새콤달콤함을 살려낸 로컬 와인을 만든다.

2000년. 한국 와인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던 시기에 안산시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정통 와인을 만들 수 있는 설비를 한국에서 가장 먼저 마련했고, 모두들 실패할 것이라며 만류한 와인 사업. 하지만 김지원 대표는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였기에 현재가 가능했다고 말한다. 지역 특산물을 상품화하는 사회적 경제 부분이 활발해지고 있는 현재,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이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꿈꾸는 자들'의 애착과 열정이 아닐까.

글 권혜진

다음 여행지 _ 부모님이 계시는 곳. 대부도의 어버이날 풍경

광장에서 아이처럼 놀다

‘2016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마법 같은 순간들

천사의 광장

위축되지 않은 자유로운 에너지를 마음껏 분출할 수 있었던 시간,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열리던 나흘, 안산문화광장은 새로운 예술적 열기로 가득했다.
5월 5일부터 8일까지 안산문화광장 일원에서 열린 2016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78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갈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지금, 우리는 광장에 있다’란 주제로 꾸며진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시민들에게 ‘광장’이란 공간을 새롭게 체험하고 즐기게 했다.

축제 시작 전부터 이슈가 됐던 개막작, 컴퍼니 그라떼 씨엘팀의 ‘천사의 광장’은 생각보다 더 아름답고 인상 깊었다. 순백의 옷을 입은 천사들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가로지르면서 하얀 깃털을 뿌리며 지나갔고, 마지막에는 약 1.5톤의 깃털들이 공중에 한꺼번에 휘날리는 풍경을 볼 때, 감탄이 저절로 나왔다. 신비롭고 평화로운 음악을 배경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깃털들을 보며, 멀리 떠나보낸 그리운 이들의 얼굴이 겹치기도 했다. 오랫동안 내리던 깃털은 마치 안산의 깊은 상처를 보듬듯 눈처럼 광장 바닥에 수북하게 쌓였다. 깃털 눈송이가 쌓인 거리는 순식간에 놀이터로 변했다. 아이 어른 구분 없이 모두 가벼운 깃털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던지면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갔다. 자연스럽게 축제의 일탈이 시작되는 마법 같은 순간이었다.

올해 축제는 다양한 취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광장 곳곳에서 펼쳐졌다. 평소였으면 차가 다녔을 거리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서커스를 하는 풍경은 묘한 해방감을 안겨줬다. 정장을 입은 남자무용수들의 공연 ‘맨 오브 스틸’은 리듬을 몸으로 그리듯이 섬세하게 연주하는 움직임을 통해 끝없이 분투하는 인간 내면의 모습을 보게 했다. 말이 아닌 몸짓을 통해 상상하는 이야기들은 에너지 넘치는 군무와 폭발하는 독무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안겼다. 또,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던 광대극과 서커스, 코미디 공연도 광장의 분위기를 한층 흥겹게 했다. 벌룬마술을 광대극과 접목한 오토의 ‘러버헤드’는 배우가 커다란 풍선 안에 들어가 다양한 형태로 변해 통통 튀면서, 재미있는 상상력을 자극했다. 오토는 관객들과 재치 있는 소통을 하며 아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도 했다. 축제의 광대극들은 아크로바틱, 저글링, 버블쇼, 불쇼 등 다양한 기예를 보여줬다. 일상을 벗어난 환상에 빠져 어른도 아이도 잠시나마 동화 속 세계를 맛볼 수 있었다.

특히 올해는 안산의 이야기를 담은 공식참가작과 창작지원프로그램이 많았다. 개막프로그램인 ‘안산사람들’은 현재 안산에 사는 각 세대 사람들의 이야기와 일상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다른 민족, 또 다른 거리 안산’은 안산에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기억과 애환을 ‘거리무용’이라는 장르로 진중하게 풀어갔다. ‘안산순례길’은 세월호 참사 1년 후에 시작된 프로젝트로 100여 명의 관객과 함께 약 5시간 가량 안산 곳곳을 걸으며 안산의 이야기를 기억했다. 예술가와 관람객의 경계를 허물고, 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로 기획된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시민버전’ 행사도 아마추어 예술단체 30개 팀이 참여해 벅찬 순간들을 나눴다.

축제 폐막은 스페인 팀 ‘그룹포 푸아!’의 ‘도도랜드X카오스모스’가 장식했다. 라이브밴드 음악을 배경으로 우주를 유영하는 듯한 공중 퍼포먼스 공연은 많은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손을 잡고 서로에게 의지해 공중에서 아름다운 형태를 만들어가는 공연팀의 움직임은 공동체에 새로운 시작을 조심스럽게 약속하게 했다. 서로를 신뢰한다면 다시 뭔가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 집으로 돌아와 자켓 주머니 속에 남아있던 깃털 하나를 발견했다. 희망 한 자락도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슬며시 들어와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 문의 : 문화예술과(031-481-2068)
송보림 명예기자 _ treehelper@naver.com

경상도 비눗방울

불쇼

문화가 있는 날, 안산선엔 예술이 달린다

안산문화재단,
문화징검다리 '예술열차 안산선'
진행해

**상록수역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걸음을 멈추고 웅성거린다.
핸드폰을 들어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을 카메라에 담는가 하면, 도포자락 아래에 숨겨있을 장치를 찾는다.
그러나 아무리 들여다봐도 빈 공간이다. 손을 흔들어 관객에게 인사를 건네는 퍼포먼스 〈무중력인간〉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안산문화재단은 지역거점 특화 프로그램으로 '예술열차 안산선'을 진행한다. 이달부터 9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마다 열리는 '예술열차 안산선'은 여섯 개의 역사에 시민과 지역예술인이 함께하는 축제로 마련된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시도하는 다채로운 거리 예술과 공연, 시민참여 퍼포먼스 등이 펼쳐져 전철 역사가 단순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소에서 더 나아가 시민들의 예술향유를 증진시키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그 첫 번째 프로그램이 지난 4월 27일, '안산의 역사歷史'를 주제로 상록수역에서 열렸다.

'상상발전소'의 〈무중력인간〉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가벼운 역발상으로 표현하는 국내최초의 초현실주의 퍼포먼스(Surrealistic Performance)로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퇴근 인파가 몰리는 오후 6시부터 무대에서 공연이 시작됐다. 우리 민요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동호회 '상록수 아리랑 민요단'이 '정선아리랑', '아리랑메들리' 등을 들려주자 어르신들은 구성진 소리가락에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등 추임새를 넣으며 장단을 맞췄다. '마블러스모션'과 '셔플코믹스'는 서로 다른 캐릭터의 두 남성이 대결을 펼치는 구도의 마임과 저글링으로 웃음을 끌어내며 관객과 소통했다. 안산문화재단 상주단체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현대무용), 연희컴퍼니 유희(풍물, 연희), 왓다 프로젝트(전통춤), DJ Ehyun(디제잉)이 협업하여 함께 신명난 춤판과 퍼포먼스를 벌이며 무대에 관람객들을 끌어들여 함께 춤을 추며 축제를 즐겼다.

안양에서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는 길이라던 김연아 씨(31세, 이동)는 "안산에 이런 거리공연과 축제가 자주 열려 참 좋아요. 거리극축제도 매년 챙겨보고 있어요. 봄 · 가을에는 안산에서 열리는 축제만 찾아다녀도 즐겁다."고 했다.

이날 축제는 지역 문화 커뮤니티와 지역 활동 작가들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수용한 '아트마켓'이 함께 열리며 예술가 프로젝트 팀과 시민 셀러 24팀이 함께 결합해 풍성한 아트마켓이 펼쳐졌다. 핸드메이드 실반지, 소이캔들, 디퓨저 등을 사고파는 이들은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으며 감사를 전했다.

이후 '예술열차 안산선'은 한대앞역(5/25)에서 '청년靑年'을 주제로, 중앙역(6/29)은 '청소년靑少年', 고잔역(7/27)은 '생명生命', 안산역(8/31)은 '다문화多文化', 초지역(9/28)은 '노동勞動'을 주제로 진행된다.

☎ 문의 : 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부(031-481-0522)
신선영 명예기자 _ woghkah@hanmail.net

나무와 항아리의 만남 그리고 항아리와 훈민정음의 만남

정운기 개인전,
오는 5월 17일부터 22일까지
단원미술관 제2관에서 열려

**이번 전시는 문인화를 통해 한국적으로 해석된 30여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정운기 화백은 산수화, 사군자 등을 그린 문인화가로 한국적이고 남이 하지 않는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눈 덮힌 광덕산에 찾은 신작의 시작

2010년 눈 덮힌 광덕산에서 누군가 꽃꽂이한 것 같은 겨울산에 영감을 얻어 나무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나무와 항아리의 만남이 시작되었고 그만의 새로운 작품 세계를 찾게 되었다. 한국적이면서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한 그의 작품세계가 이번 전시에서 오롯이 펼쳐진다.

항아리와 훈민정음의 만남

정 화백은 신작에 배경을 입히는데 그 배경으로 훈민정음 자모를 사용한다. 배경이 된 한글 자모는 끝없이 광활한 우주가 되고 나무 항아리는 그 우주 안에 떠있는 달인 듯하다. 한글 자모는 원색으로 채색해 강렬한 느낌으로 광활하고 혼란스러운 우주를 표현했다. 달 항아리는 인내의 모습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담았다. 그래서 항아리와 뒤 배경은 극과 극이라 할 수 있다. 항아리 안에 나무를 그려 넣은 게 아니라 한없이 뻗어나가다 멈춰지는 경계가 바로 항아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새로운 시도에 대한 두려움 없애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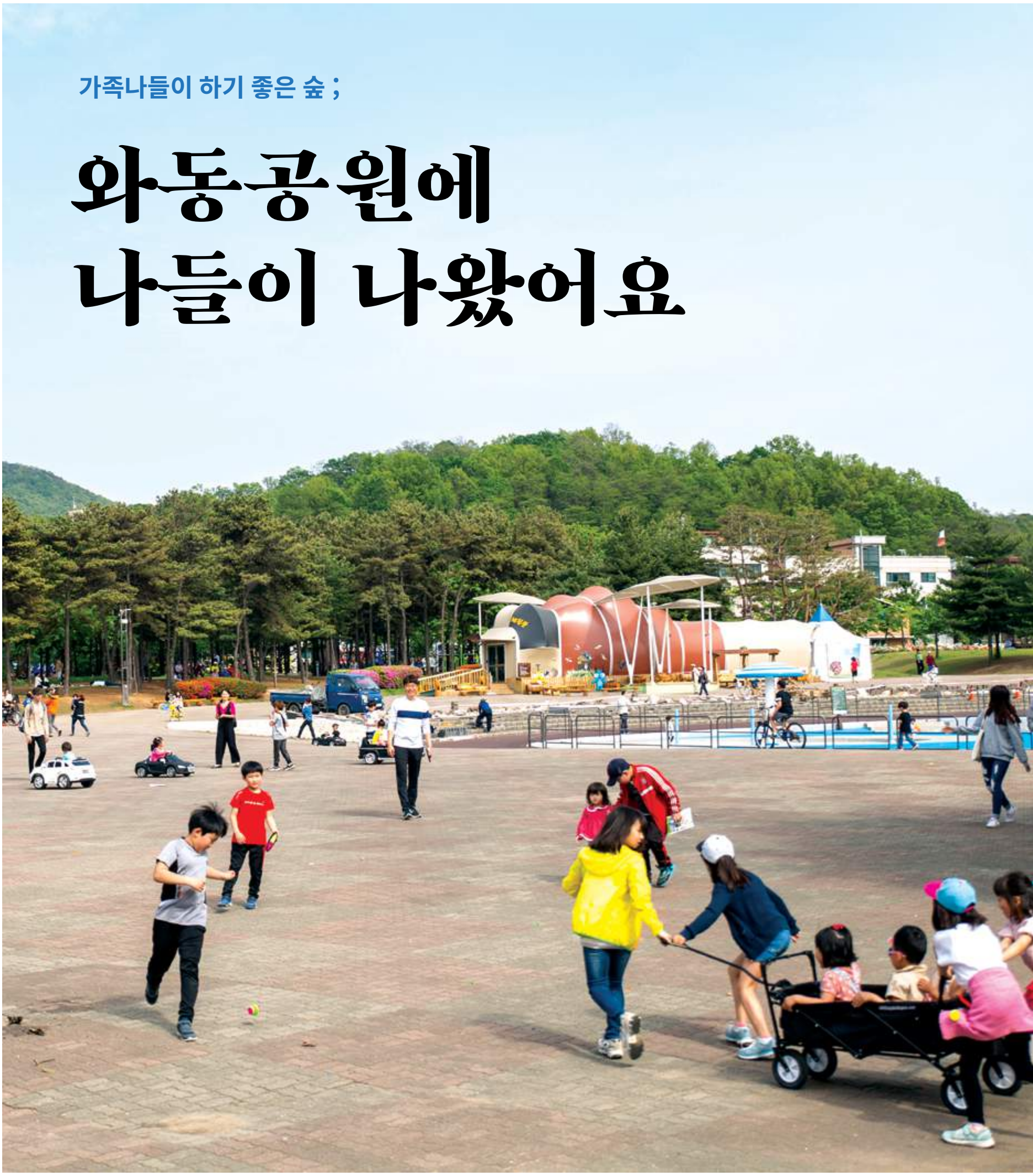
정운기 화백은 "새로운 시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야 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새로운 시도를 통해 나만의 작품세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복영 미술평론가는 '작의(作意)에서 붓놀림에 이르는 과정이 범상치 않다. 통상적인 응물상형(応物象形)을 빌리지 않는다. 응물상형 대신 사유(思惟)의 실험을 채워나감으로써 상형의 과정을 뛰어넘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자신만의 회화 세계를 일구어 내고자 한다.'라고 표현했다.

문인화를 기초한 붓으로 그려낸 독창적인 작품. 동적인 것과 정적인 훈민정음과 달항아리의 만남. 문인화를 통한 한국적으로 해석된 작품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문의 : 단원미술관(031-481-0504)
이선희 명예기자 _ iamyou70@hanmail.net

가족나들이 하기 좋은 숲 ;

와동공원에 나들이 나왔어요



MADE IN 숲

2016년 한 해 동안 숲 이야기를 연재한다.
겨울 숲, 사색하기 좋은 숲, 운동하기 좋은 숲, 데이트하기 좋은 숲, 가족나들이하기 좋은 숲, 힐링하기 좋은 숲, 생태 숲, 아파트 숲 등 숲의 다양한 기능과 추억을 담는다.

꽃이 좋은 요즘 주말이면 와동공원에는 여기 저기 돗자리를 깔고
가족끼리 혹은 이웃, 친구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이웃사촌인 이설희 씨와 우현희 씨도 일요일인 지난 5월 1일 본오동에서 이곳을 찾았다.
아이들은 공원 안에 있는 곤충체험관을 둘러보고 어느새 자연의 품에 안겨 시간가는 줄 모른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손에서 놓지 않는 요즘 아이들이지만
이곳에서는 필요 없다는 듯이 두 아이는 연신 웃고 재잘대며 공원과 친구가 됐다.
이설희 씨와 우현희 씨는
“와동공원에 처음 왔는데 시야가 탁 트이는 느낌이다. 오래 된 나무도 많고, 철쭉도 참 예쁘다.
넓으면서도 아기자기 하다.”며 “아이들도 좋아하고 앞으로 가족과 함께 자주 올 계획”이라고 했다.

와동공원은 5만 7천여 제곱미터 넓이에 2만여 그루가 넘는 나무와 꽃들이 살고 있다.
공원외곽을 바람막이처럼 에둘러 서있는 리기다소나무들은
마치 ‘여기서부터 공원’이라고 말하듯이 사철 푸른 모습으로 공원을 지킨다.
4월 초순 일제히 꽃망울을 터트려 장관을 이뤘던 벚꽃나무들은 지금은 꽃잎을 다 떨어뜨리고
콩알만 한 연둣빛 열매를 꽃 진 자리에 달고 있다.
그 나무 가지 사이로 이름 모를 새들이 날아들고 그늘 아래서는 자연과 친구가 된 아이들이 자란다.
나들이 나온 어른들은 지친 일상을 내려놓고 위안을 받는다.
어르신들은 아기 적 길을 생각하며 추억에 잠긴다.

주택가 한복판에 자리 잡은 와동공원은 주택밀집 지역인
이 곳 주민들의 좋은 나들이 공간이자 뜨락 없는 도시민의 정원이다.
언제부턴가 풀 한 포기 꽃나무 한 그루 자랄 공간까지 사람이 거주하는 내부공간으로
확장한 도시인들에게 공원은 모두의 정원이 됐다.
삭막한 콘크리트 환경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공원의 숲에서 자연의 기운을 받고 내일을 살아갈 에너지를 재충전한다.
꽃이 피고 지는 공원 숲에서 도시인들은 자연과 친구가 되고 살아간다.

백미란 명예기자 _ whity0218@naver.com /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_ econojin@naver.com

‘도서관이 진화한다’

안산시, 지역 서점과 연계한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도」 시행

책을 좋아하기도 하고, 업무상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세계 경제 흐름을 꿰뚫어야 하는 직장인 김종성(42세, 선부동) 씨는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간 등 읽고 싶은 책을 지역서점에서 바로 빌릴 수 있는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도’가 5월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여간 반갑지 않았다. 김 씨는 일간지 책 소개 난에 올라오는 ‘금주의 책’이나 도서관의 ‘이달의 추천도서’ 등을 메모해두었다가 시간 내서 한 번 씩 대형서점에 들러 살펴보는 게 취미다. 그러다가 구입해서 읽고 싶은 책은 사가지고 오게 되는데 한 번 읽고는 책장에 모셔두게 되는 책들이 많아지면서 김 씨는 책을 구입할 때 고민이 됐었다. 그런 김 씨이기에 읽고 싶은 책을 서점에서 바로 대출할 수 있는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도는 무척 반가웠다.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도’는 시민과 지역서점을 연계해 이용자들이 보고 싶은 도서들을 직접 서점에서 대출해 본 후 서점으로 반납하는 서비스이다. 반납된 도서는 서점에서 도서관으로 보내지고 도서관 장서로 등록이 된다.

문양교 중앙도서관장은 “안산의 독서 인구 확대를 기대하며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도를 추진했다.”며 “희망도서 바로 대출은 매일 쏟아지는 서적 중에서 안산시민이 자신이 원하는 걸 골라 읽음으로써 최신 정보의 빠른 흡수뿐만 아니라 지적 역량 또한 넓히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다. 지역서점 입장에서는 매출이 늘게 되고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앙도서관은 5월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 20일부터 희망회원 200명을 모집했다. 안산시 도서관 회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6개월간 연체 이력이 없고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한 후 1권이라도 책 대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학습문제집이나 수험서 등 일부 도서는 희망도서 선정기준에 제외돼 바로대출이 어렵다. 1인당 대출 가능 권수는 5권으로 대출기간은 2주 14일이다. 선정된 회원은 도서관 회원증 지참 후 자신이 지정한 서점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희망도서 바로 대출은 오는 11월까지 시범 운행될 예정이다.

☎ 문의 : 중앙도서관(031-481-3868) / 백미란 명예기자 _ whity0218@naver.com

책 읽는 안산 / 5월 첫 번째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우리는 가족입니다

아동

엄마 꿈 속에서

저자 유준재 / **출판사** 문학동네

잠이 오지 않는 아이가 엄마의 꿈속을 상상하는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이다. 엉뚱하고 귀여운 아이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무한한 상상력이 놀라움을 자아낸다. 이 책에는 엄마와 아이 사이에 오가는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소한 일상 속 따뜻하고 다정한 장면들을 개성 있는 그림으로 그려내 재미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청소년

커피우유와 소보로빵

저자 카롤린 필립스 / **출판사** 푸른숲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 노동자 가족이 겪는 애환을 소박하고도 담백하게 그려낸 소설로 유네스코의 ‘평화와 관용의 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이 책은 아프리카에서 독일로 이주해 온 외국인 노동자 가족의 이야기로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폭력과 따돌림에 시달리는 열 살짜리 소년 ‘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사회와 친구들로부터 정신적, 육체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으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아이의 심리, 그 속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우정들이 섬세하게 그려지고 있다.

성인

가족 쇼크

저자 EBS가족쇼크제작팀 / **출판사** 월북

‘왜 유독 요즘 가족은 서로를 힘들어할까’ 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가족 쇼크」는 주변 가족을 직접 찾아가 내면의 현 모습을 살펴보고, 국내 최초 가족 실험을 통해 행복한 가족, 잘되는 가족이 만들어지는 조건을 본격적으로 탐구한다. 가족의 다양한 위기 상황들을 교육, 심리, 사회학적 관점에서 폭넓게 조명하고, 가족의 근간을 돌아봄으로써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새로운 가치를 찾도록 도와준다.

자료제공 _ 중앙도서관

우리 곁 평범한 천사들의 이야기

속정 많은 301호 아주머니의 관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 그 분을 옆에서 자주
들여다보며 챙겨야 하는데 사회복지사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들이 유독 많아지고 있는 요즘,
가까운 곳에서 이웃을 돌보는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는
가뭄에 만난 단비처럼 흐뭇하다.

콜센터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왔다. 같은 건물에 사는 독거노인의 집 상태가 심각하다는 제보였다. 처음에 단순한 악취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 사회복지사는 마침 그 집을 방문했는데,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원룸형식의 반지하 집 전체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 화장실까지 쓰레기가 가득차서 도저히 용변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태였다. 악취는 물론 바퀴벌레나 쥐까지 출몰할 정도였다. 이런 70대 할아버지를 도울 수 있었던 건, 같은 건물에 사는 301호 아주머니의 관심 덕분이었다. 같은 건물에서 6년 이상 살던 박 모 씨는 평소 악취가 나는 반지하에 사는 할아버지의 집을 조금씩 치워주기도 하고, 국이나 반찬을 가져다 드리곤 했다. 하지만 평소 저장강박이 있던 할아버지의 집은 도저히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집에서 식사는 물론, 화장실 사용도 어려웠다. 아주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시의 복지정책과의 도움을 받을 것을 계속 권유하며 설득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집안에 있던 엄청난 양의 쓰레기부터 처리하기로 했는데, 그조차 쉽지 않았다. 폐기물 업체에서조차 막상 집을 보더니 너무 놀란 상황에서, 아주머니와 사회복지사가 통사정을 하면서 작업이 시작됐다. 나무토막, 쓰레기, 썩은 물을 들어 낼 때마다 바퀴벌레는 물론 쥐까지 튀어나왔고, 공업용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악취가 났다. 쓰레기를 치우는 분들도 계속 '앗! 쥐, 쥐 또 나와'를 연발하며 4시간 동안의 긴 작업이 이어졌다. 2.5톤 트럭이 가득 차도록 쓰레기가 나왔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폐기물업체도 마음을 내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막상 쓰레기를 치우고 났더니, 씽크대, 화장실 변기도 쓸 수 없었고, 도배, 장판도 갈아야했다. 그 후 선부2동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여러 유관단체들이 열정적으로 함께 발 벗고 나섰다. 건축과에서 지원하는 가정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해 도배, 장판, 변기, 씽크대까지 갈았고, 동장은 새 것 같은 중고 냉장고와 가스렌지도 공수해왔다. 쓰레기로 가득 찼던 집이 어느새 새집처럼 몰라보게 반짝거렸다. 301호 아주머니는 혹시나 싶어 집주인한테 할아버지가 집을 깔끔하게 유지하면 내쫓지 않는다는 확답까지 받았다. 현재 그 집은 많이 깔끔해졌지만, 할아버지가 벽돌이나 다른 물건들을 다시 주워오면 아주머니가 계속 버리는 일을 도맡아 하신다. 사회복지사는 301호 아주머니의 도움의 없었다면 혼자 힘으로는 못했을 거라고 말한다. "오늘도 아주머니가 미역국하고 곤드레밥도 가져다 드리고, 할아버지 방에 커튼도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아주머니는 할아버지가 아버지 같으시대요. 그분이 예전에 치매 시어머니도 모셨고, 그 지역 반장님이셔서 그런지 주변 이웃에 다 관심을 가지세요. 저한테 또 다른 케이스를 의뢰하셔서 다음 주에는 다자녀 가정을 방문해요."라며 웃었다.

송보림 명예기자 _ treehelper@naver.com

공사 전

공사 후

우리 지역의 동아리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 봉사합니다
안산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발로 뛰어 봉사단'

앞치마와 위생 모자를 갖춰 입은 10여 명의 봉사자들이 식재료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서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쁘게 봉사할 것이며, 나 자신이나 단체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 나눔의 의미만을 생각하는 적극적인 봉사자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발로 뛰어 봉사단' 다짐 글을 한목소리로 읽으며 오늘의 요리를 시작한다.

건강과 나눔의 지역공동체인 안산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발로 뛰어 봉사단' 조리봉사단원들의 손길이 분주해진다.

조영희(52세, 성포동) 조리장의 지휘 하에 재료를 다듬거나 세척을 하며 자신이 맡은 일을 하느라 여념이 없지만 얼굴표정은 부드럽기 그지없다. 오랜만에 본 회원들은 서로간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새내기 주부들은 선배 주부들에게 요리에 관한 질문이나, 자녀 교육과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깃거리가 쏟아진다. 토막 낸 닭을 뜨거운 물에 데쳐 불순물을 제거하던 조영희 조리장은 "봉사를 시작해 보라는 남편의 조언으로 여러 곳을 알아보던 중 '발로 뛰어 봉사단' 조리봉사단을 알게 되었다.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만든 음식이 꼭 필요한 분에게 전달되니 더 큰 보람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조리봉사단원들이 오늘 만드는 음식은 닭야채볶음, 느타리버섯볶음, 오이무침, 무생채, 무장아찌다. 이들이 조리한 음식은 배달봉사자들의 손에 들려 상록구에 거주하는 52명의 어르신에게 전달된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두 번 반찬을 배달하며 어르신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안부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배달봉사자들의 역할이다.

2012년 10월 출범한 '발로 뛰어 봉사단'은 밑반찬 조리, 배달 봉사뿐 아니라 건강체조봉사, 김장봉사, 노노봉사, 밥차 봉사 등 홀로 사는 어르신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봉사를 시작한지 한 달이 되었다는 임정희(44세, 사동)씨는 "봉사를 하고는 싶었지만 아이들도 어리고, 왠지 자신이 없어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인터넷 검색 후 이곳을 알게 되었다. 일주일에 두 번, 2시간의 봉사활동이지만 되도록 빠지지 않고 나오려고 한다. 내 부족한 손길로 어르신을 도울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자원봉사란 어떤 일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도움, 또는 그런 활동을 말한다. 자원봉사를 할 때마다 자원봉사자의 다짐을 입으로 되새기며 자신을 올곧게 세우는 봉사단원들의 마음이 손길에, 발길에 오롯이 젖어있다.

김은미 명예기자 _ iami34@hanmaill.net

브라보안산은 시민여러분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를 매호 마다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참여하고 있는 동아리를 알리고 싶으신 분들은 ☎ 481-2042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싸우다 지친 이들이 찾아와 힘을 얻고 가는 도시가 됐으면

4.16 참사 이후 한국사회의 '대안적 가치'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세월호 참사를 두고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란 말을 많이 한다. 그럴 때 계속 들었던 물음은 '국가란 무엇인가?'란 질문이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뭘 바꿔야 할까', '어떤 지향을 갖고 이 사회를 바꿔야 할까'라는 질문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지난 4월 28일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당에서 '4·16 참사 이후 한국사회의 대안적 가치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두 번째 416 봄을 만드는 사람들'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의 사회로 사회학자와 역사학자의 발제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김왕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세월호 참사를 불러온 사회구조적 요인들로 생명존엄 인권의식과 직업윤리의 부재, 국가 시스템과 리더쉽의 문제 등을 꼽으며, "기억과 망각의 투쟁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참사이후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할 교육관계자들의 침묵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아직 세월호 사건의 진상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안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 너무 성급하진 않을까'란 생각도 들었다며, 한국 역사 속에서 죽음에 응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든 사례와 경험을 공유했다. "고종황제의 죽음에 응답했던 3.1운동, 김주열의 죽음에 응답한 4월 혁명, 5.18학살에 응답한 광주민중항쟁 등을 예로 들며, 역사적 사건에서 어떤 가치가 형성되고 그것을 내면화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하기위해서는 최소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일단 광주 문제 해결에서 보듯이 과거청산의 일반적 원칙이 관철돼야 한다.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되며, 적절한 배상과 보상이 이뤄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은엄마 박은희 씨는 조용히 토론문을 읽어나갔다. "참사 1주기 즈음 한 학생이 '그럼 1년 동안 바뀐 건 뭐죠?'란 질문을 했을 때,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할 수 있었던 건 가족들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었다. '나라가 다 알아서 해줄텐데'라는 말이 익숙했던 부모님들이 행동했다. 다시 2주기 앞두고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말할 수 있던 건 '시민들의 변화'였다. 타인의 문제에 관심이 없던 이들이 각자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결국 세월호 참사가 남긴 가치는 시민 한명 한명이 주인이 돼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이뤄내는 것 아닐까. 쉽지 않은 이 일에 안산이 기억의 담지자로서, 싸우다 지친 이들이 찾아와 힘을 얻고 가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송보림 명예기자 _ treehelper@naver.com

장애인의 꿈, 가치 있게 나눠요, 다함께

2016년 제1회 안산시 장애인 생산품·체험 박람회 열려

지난 4월 30일 안산문화광장 전망대 광장에 마련된 '2016년 제1회 안산시 장애인 생산품·체험 박람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뜻 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며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안산시 내 모든 장애인 복지시설이 참여한 첫 번째 행사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홍보, 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상담 외에 비장애인이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고 모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체험부스를 마련했다.

"장애인의 고용창출을 위해 빵을 굽습니다. 행복한 커피를 내립니다."라고 외치는 '행복한 학교' 관계자들과 부스를 찾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퀴즈를 내고 선물을 내주는 이용석(24세, 본오동) 씨의 손발이 척척 맞는다. 이날 행사에서 안산시장상을 수상한 이용석 씨는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았지만 '행복한 학교'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후 현재는 자신과 같은 장애인 교육생을 돕는 보조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리고, 여자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맛있는 것도 해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이용석 씨의 표정이 또래 청년들처럼 밝고 상기되어 있다.

발길을 옮기니 많은 학생들로 북적이는 곳이 있다. 바로 '흰 지팡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체험장이다. '흰 지팡이 체험'을 마친 양지영(16세, 초지중) 양은 "막상 안대로 눈을 가리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무서웠어요. 지팡이 하나로 점자보도블록을 짚어가며 걷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어요."라고 말했다.

2014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장애 인구는 272만 6천 명으로 집계되었다. 그중 선천적 장애는 11.1%, 나머지 88.9%가 사고나 질환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인으로 나타났다. 많은 장애인들이 과거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차별을 덜하다고 느끼지만 취업과 관해서는 차별을 경험했다고 한다. 그러나 장애특성에 맞게 세분화하고 개별화한 직업 교육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장애인도 많이 있다. 박람회에 참가한 안산시 내 장애인 일터에서는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직업교육을 받고 근로의 기쁨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보람을 찾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장애에 대한 인식이 차별이 아닌 특별함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에게 장애인 생산품을 널리 알리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사회복지과(031-481-2879)

김은미 명예기자 _ iami34@hanmail.net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25일 개회

1차 본회의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안건 의결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가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회기에 돌입했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등 안건 10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 따르면 이번 229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5월 12일까지 18일간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의회는 상임위원회(4월 26일 ~ 5월 2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4월 25일, 5월 3일 ~ 5월 10일), 본회의(4월 25일, 5월 11일, 5월 12일)를 개최해 안산시가 제출한 1조 4천175억여 원 규모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시정질문 등을 실시하게 된다.
예산결산심의위원회는 김재국(특위 위원장), 김동수(특위 간사), 전준호, 이상숙, 김동규, 박은경, 이민근 위원 등 7인으로 구성됐으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신성철, 전준호 의원이 선임됐다. 아울러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규)는 당초 이달 말까지인 활동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로 2개월간 연장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의 경우 홍순목 의원이 위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손관승 의원이 위원으로 보임됐다. 성준모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되고 시정질문도 예정돼 있다"면서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시의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결위원장에 김재국 의원 선출

5월 3일부터 10일까지 올해 1회 추경예산안 심의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가 25일 개회한 가운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김재국 의원이 선출됐다.
의회는 이날 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위원장에 김재국 의원을, 간사에 김동수 의원을 선임했다. 위원으로는 전준호, 이상숙, 김동규, 박은경, 이민근 의원이 활동하게 된다. 이날 구성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월 3일부터 10일까지 기정예산에서 518억여 원 증액된 1조 4천175억여 원 규모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김재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회기에서는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돼 있는만큼 예결위 위원들과 협력해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심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과 안양의 시빌 워(Civil War), '4호선 더비'

개봉 1주일 만에 관객 444만 명을 돌파한 영화 시빌 워(Civil War : 내전 또는 시민전쟁)가 K리그 챌린지에서 현실로 펼쳐진다.
5월 14일(토)에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K리그 챌린지 10라운드 경기의 안산무궁화프로축구단과 FC안양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이 두 시민구단들의 평범할 것만 같았던 매치는 양 팀 구단주들에 의해 점점 불이 붙고 있으며, 마치 전쟁과도 같은 두 시민구단의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즌 초 안산의 구단주는 동갑내기 친구인 FC안양의 이필운 안양 시장에게 연락해 '메이어 더비'를 요청했다. 배경은 K리그 시민구단의 흥행을 몰고 왔던 성남FC와 수원FC의 '깃발라시코'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에 더해 안산시는 경기에서 진 팀의 구단주는 등에 스코어가 새겨진 상대팀 유니폼을 입고 하루 동안 집무를 보기로 하자는 흥미로운 제안까지 더했다. 더비의 이름은 같은 4호선 라인에 있는 두 K리그 시민구단의 경기라는 뜻의 '4호선 더비'로 하자라는 제안을 하면서 두 구단의 매치 열기는 정점을 찍었다.
현재 안산무궁화프로축구단은 6승 1패로 K리그 챌린지 단독 선두를 달리며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른 상태이다. 이러한 안산을 상대로 하는 FC안양은 단 1승만을 거둔 채 4경기 연속 무승으로 리그 8위에 올라있다. 안산과 안양, 양 팀 구단주들의 자존심을 건 승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더비 같은 도시나 지역을 연고로 하는 팀끼리의 경기.
이는 19세기 중엽 영국의 소도시 더비(Derby)에서 기독교 사순절 기간에 성 베드로(St. Peters) 팀과 올 세인트(All Saints) 팀이 치열한 축구 경기를 벌인 데서 유래한 말이다.

＊일시장소 : 2016. 5. 14(토) 15:00, 안산 와~스타디움
＊경기상대 : 안산무궁화FC vs 안양FC
＊관련행사
장내행사 : 경찰대학 의장대 공연, 모터페러 축하 비행
장외행사 : 열기구 체험, 페이스페인팅, 볼비어 프로모션, 레드불 시음회 등
경 품 : 자전거, 서울랜드이용권, 라섹상품권, 보약(한약)교환권, MRI 검진 촬영권, 와스포츠센터 연간 회원권 등
＊입장권판매 : 안산무궁화FC(☎480-2002), 티켓링크(http://sports.ticketlink.co.kr)
시 즌 권 : 50,000원(20장), 일일입장권 5,000원(1장)

☎ 문의 : 체육진흥과(031-481-2992)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광대들의 거리에서
웃고 즐기고 인연을 만들다.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_ hanmarus@naver.com

Photos in Ansan
사진으로 보는 안산

우리동네 어린이날

사1동의 어린이날은 작지만 알찼다.
어린이날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_ econojin@naver.com

내가 안산으로 이사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

충남 천안에 살다가 직장을 따라 이곳 안산으로 이사를 온 지 1년이 다 돼간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낯선 곳이다 보니 사람 사귀는 데도 시간이 걸렸다.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이른 새벽, 운동삼아 골목길로 나가 빗질을 해왔다. 그러면 내가 안산시민이 되는데 조금 일조 한다는 생각도 들고 이른 아침에 출근하는 시민들을 보며 내 생활도 다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며칠 전, 고향 선산의 땅 문제로 밤 늦게까지 고민을 하다가 늦잠이 들어 아침 청소 시간에 늦어 버렸다. 아차 싶어 운동복 바람으로 서둘러 뛰쳐 나갔더니 대문 밖 대각선 저쪽에서 여성 한 분이 조용히 깨끗하게도 청소하고 계신 모습이 보였다. 연세도 60대 중반은 되어 보였다. 다음 날,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일찍 나가 좌우를 살펴 보니 역시 그날도 앞집의 긴 담 밑에까지 깨끗이 쓸어 마무리하신다. '내가 존경스러운 이웃과 사는구나, 안산의 주민들은 참 부지런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런 분과 이웃하며 사는게 행복이로구나"하는 마음도 생겼다. 그 며칠 후 나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넸다.

"맨날 아침 골목길이 너무 깨끗하기에… 저보다 먼저 나와서 비질을 하시는 분이 계신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게을러진 것 같아서요"

멋쩍게 웃으며 인사를 드렸더니 그분은 겸손해 하시면서 "아닙니다. 저도 이사온 지 얼마 안돼서 동네분들 잘 모르고 그냥 운동삼아 아침 청소를 좀 한 것뿐입니다. 자주 뵙겠네요"라고 하셨다. 거리가 깨끗하다 싶으면 누군가의 노력이 그곳에 깃들어 있는 게 당연지사다. 그분은 단지 지금의 건강과 작은 행동이 아침 일터로 나서는 모든 동네분들에게 상쾌한 첫발을 내딛게 할 수 있어서 그게 행복이란다. 그런 걸 모를리 없지만 다들 나름대로 바쁜지라 일일이 내집 앞 쓸기를 하기가 어려운 게다. 그래서 먼지를 마시며 아침 골목길 청소를 하시는 그 여성분은 더욱 아름답다. 이야기 도중에도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곧잘 미소를 띄웠다.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어째 사회에 도움될 만한 일을 한 건 별로 없는 듯합니다.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 어떤 분이 우유를 돌리다가 청소하던 저를 보고 뭐라고 한줄 아세요?"

"뭐라 하던가요?"

"우유는 마시는 사람보다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더군요"

이건 상쾌한 덕담이었다. 그랬다.

깨끗하게 쓸어진 아침 길을 밟는 주민도 기분이 좋겠지만, 그 길을 쓸어주는 당신의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지는 거란다. 오늘 아침도 그분 덕분에 유쾌하게 시작할 수 있는 내 삶의 터전, 안산이 좋다.

유용학(단원구 와동공원로)

생활 속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채택 시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무료 구독신청 031-481-2042, E-mail : bravo@iansan.net

6월부터 만12세 여성청소년 대상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무료 실시

- **올 6월부터 2003. 01. 01 ~ 2004. 12. 31일 출생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6개월 간격으로 두 번 무료로 접종한다.**
-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암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병률이 높지만,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여성암이다. 접종 대상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받을 수 있다.**

  지정의료기관 확인은 5월 중순 이후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사이트, 또는 앱에서 확인 가능

-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자궁경부암 백신은 지금까지 전 세계 65개국에서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 돼 2억 건 이상 안전하게 접종되고 있는 백신이라고 설명하며,**
- **지난 2013년 일본에서 발생한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이슈에 대해 세계보건기구(국제백신안전성 자문위원회)에서도 예방접종을 중단할 만큼의 백신안전성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일본후생노동성은 2013년 백신접종 후 보행장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을 호소한 이상반응 사례에 대해 접종대상자의 심리적 불안과 긴장에 의한 것으로 잠정결론 내림('14. 2월, 7월).
  일본 이외에 자궁경부암 백신을 도입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특별한 안정성 문제가 없었음

| 문 의 |
안산시 상록수보건소(481-5971~3)
단원보건소(481-3513~5)

아리송한 맞춤법을 알려주는 '브라보 Talk'

엄마,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골치 아픈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오후 01:42

오후 01:57 뭘 그렇게 많이 해 먹기에 그러니? 먹을 만큼 적당히 조리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

그렇긴 한데~ 계란을 많이 먹으니까 껍데기가 한 가득이야. 오후 01:57

오후 01:53 계란껍질은 쓸모가 많지. 잘게 부숴서 입구가 좁은 병에 넣고 흔들면 깨끗하게 닦여~ 그리고 빨래 삶을 때 세탁망이나 거즈에 싸서 넣으면 얼룩도 없애주고 표백효과도 있어.

와우~ 좋은 정보네. 그런데 엄마가 그런 거 어떻게 알아? 오후 01:57

오후 01:57 왜이래~ 엄마가 이래봬도 주부9단이야. 그리고 또 있어. 잘게 부숴서 비료로 써도 아주 훌륭하단다.

완전 좋은 정보 고마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장본 거 엄마가 결재해주면 안될까? 오후 01:57

전 송

껍질은 '껍데기'라고 써야 맞습니다

'껍데기'는 '달걀이나 조개 따위의 겉을 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 또는 '알맹이를 빼내고 겉에 남은 물건'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예 》 달걀 껍데기를 깨뜨리다. /
속에 든 과자는 다 먹고 껍데기만 남았다.

'껍질'은 '물체의 겉을 싸고 있는 단단하지 않은 물질'을 말합니다.

결재는 '결제'라고 써야 맞습니다.

'결제'는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이라는 뜻으로 경제적인 측면, 즉 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카드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 공사 대금 결제가 미뤄졌다.

'결재'는 '어떤 사안에 대해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이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김은미 명예기자 _ iami34@hanmail.net

뉴스 미란다 원칙

브라보안산에 게재된 내용 중 **문의사항, 반론, 정정 요청사항**이 있는 분은 해당부서 및 안산시청 공보관실(031-481-2042)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안산시 주민참여예산 사업공모

우리 시 예산편성, 여러분이 직접 제안해 주세요~

참여방법 안산시예산공개시스템(http://fin.iansan.net)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 사업제안서 제출
문 의 안산시청 예산과(031-481-3028)

사람과 자연의 연결
제1회 생태계서비스파트너십 아시아 총회
2016. 5.30.(월) ~ 6.3(금) 안산시(한양대 에리카캠퍼스 게스트하우스 컨퍼런스홀)

제9회 안산시
학생 공공디자인 공모전

접수기간 2016.6.1~6.15

공모주제
사람과 생명이 공존하는 "숲의 도시" 안산을 공감할 수 있는 창의적 디자인

공모분야
1) 한국형 다문화거리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되, 유니버설디자인이 필요한 모든 영역
– 경제, 환경, 관광, 교통, 도시문화, 복지, 체육 분야 등
2) 안산 인재 육성제안의 이념과 목표가 함축적으로 표현된 심볼마크 및 슬로건 등

응모자격
공고일(2016.4.11)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안산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작품설명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작품 CD(CD-R), 작품패널(규격A1보드)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 안내
www.iansan.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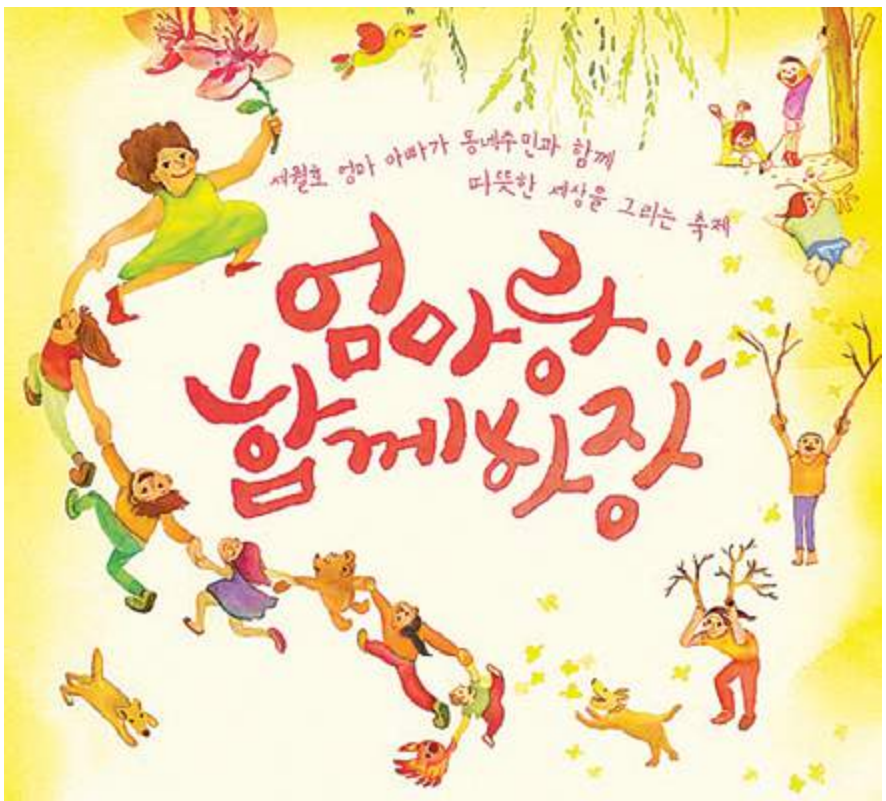
출품제한
· 작품주제에 벗어나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작품
· 원본과 다르게 조작, 합성, 위·변조된 작품
· 타 공모전에 출품 또는 입상경력이 있는 작품
· 타인의 작품을 표절하였거나 표절로 인정되는 작품
· 타인 및 법인 등의 저작권이 매도되었거나 진행 중인 작품

심사발표
2016년 8월 중 발표
안산시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작품시상

구분	대학생	작품수	구분	고등학생	작품수
대상	300만원	1	대상	150만원	1
금상	150만원	1	금상	100만원	1
은상	100만원	2	은상	50만원	2
동상	50만원	2	동상	30만원	2
입상	20만원	4	입상	10만원	4

접수방법 및 문의
방문접수,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7 상하수도사업소 4층 안산시 도시디자인과
안산시 학생 공공디자인 공모전 담당자 앞 (☎ 031-481-2635)



일 시 2016. 5. 14(토) ~ 15(일), 양일간 11시 ~ 17시
장 소 안산 화랑유원지 대공연장 일대
문 의 010-3725-8786, 010-5682-2672

프로그램
함께 만나장 세월호 엄마 아빠가 만든 공예품을 만나요
함께 나누장 벼룩시장에서 이웃과 만나요
함께 배부르장 정성이 담긴 건강한 먹거리가 있어요
함께 즐기장 흥겨운 음악과 춤을 즐겨요

주 최 416가족협의회 / 416공방
주 관 안산온마음센터
문 의 안산온마음센터(031-411-1541)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추천하는
건강 먹거리

* 단호박의 효능

감기 예방 효과
호박의 색깔인 녹황색을 띄게하는 베타카로틴은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감기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암 예방 효과
단호박에 많이 함유되어있는 비타민C는 체내에서 발암물질이
만들어 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맛있는 단호박 고르는 방법

– 단호박을 들어보았을 때 크기에 비해 묵직한 단호박이 좋습니다.
– 단면을 확인 할 수 있다면 과육의 색이 진하고 속이 마르지 않은 단호박이 좋습니다.
– 꼭지가 노랗게 말라있는 단호박이 완전히 익어서 맛이 좋습니다.

* 맛있는 단호박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

– 통째로 보관 할 때는 서늘한 그늘에 두면 오랫동안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 자른 단호박은 속과 씨를 제거하고 랩으로 싸서 냉장보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맛도 좋고 감기도 예방해 주는 단호박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입하세요.